자기주도적 기초학력정착 방안 탐색
YMS FICHE PLANNER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전인교육

김천갑 용북중학교장
cgkim1957@hanmail.net
http://www.facebook.com/chungab

I. 머리말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과정을 이끌어나가는 학습활동입니다. 타율적인 학습자가 되느냐,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되느냐는 학습자 본인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습니다. 학습과정에 작용하는 동기·인지·행동이 상호작용하여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기초학력 정착을 위해서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자기주도적으로 충분히 익히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환류(feedback)하는 습관을 길러주어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잘 배워서, 자기가 충분히 연습하기 위해 복습해야할 내용과 예습할 내용을 정하여, 즉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학습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그 실천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학습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기초학력 정착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북중학교에서는 자기주도적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YMS FICHE PLANNER를 활용하여 자신이 믿음영역(Faith Domain)과 학습영역(Intelligence Domain), 품성영역(Character-Building Domain), 건강영역(Health Domain)에 대해 월간, 주간, 일일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세워서 날마다 그 목표를 실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목표 세우기에 환류시키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II. 문제 제기

1. 주의·집중력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에서 '반' 또는 '학급'이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이 관심이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거나 선택한 정보가 아니면 변화가 일어나도 알지 못하는 변화맹(變化盲, Change blindness) 현상이 일어납니다. 변화맹이란 사람이 시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다 선택해서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하나의 장면에 변화가 일어나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의·집중해서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교사가 칠판에 쓰는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고, 교사가 말하는 모든 말을 들어도 모두 감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새로운 지식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교사가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학급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완전학습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합니다. 교사는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지 못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다시 이해하고 배

우도록 지도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45분 수업에서 과목의 진도를 수업과정 운영 계획대로 나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수업에서 배우지 못한 학생들 모두에게 개별적인 가르침을 주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 기초학습능력

중학교 학생들 중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을 완전학습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당수가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누적된 기초학력 부족으로 인해서 가르치는 지식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생들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글을 조리 있게 쓰는 능력, 기본적인 수리계산 능력을 부족하여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학 학력이 부족하면 수학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영어 학력이 부족하면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과목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자신이 잘 하는 과목만 열심히 하고, 잘 하지 못하는 과목을 공부하기 싫어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는 동안 기초적인 학력을 충실하게 쌓지 못한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새로운 지식을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도전과 실패'를 계속하다가 '나는 할 수 없다'는 자성예언(自成豫言)을 하게 됩니다.

3. 자존감

어린 시절 동안의 가족 관계는 자존감(自尊感, self-esteem)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들은 어린아이가 도달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움으로써 자존감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지원해 주고, 애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자존감을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학습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보면 자존감이 심히 낮습니다. 대개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은 정신적 외상(trauma)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방임하여 키웠거나, 과보호를 하면서 양육하였거나, 학대를 하면서 기른 경우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정신적 외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을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진 경우에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개인적 가치와 능력에 대한 믿음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포함해서 무슨 일이든 내가 시도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지 못합니다.

캐런 호니는 '낮은 자존감'은 과도하게 인정 받기를 원하고 애정을 갈망하며, 개인적 성취에 대한 극단적인 열망을 표현하는 성격의 발달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격에 대한 알프레트 아들러의 이론에 따르면, '낮은 자존감'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스스로 느끼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들의 강점과 재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분투하게 합니다. 사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애정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강점을 살려서 재능을 키워주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또래집단과 같은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존심을 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 또래 친구로부터 학습에 있어서 도움

을 받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도 둘이 서로 묻고 가르쳐주는 또래학습을 하는 모습니다.[1] 또래학습은 동료 학습자가 교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수 방법인데, 자신이 잘 모르는 기초적인 사항을 친한 친구가 가르쳐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거워하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초적인 문제를 교사에게 물어보면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교사에게 물어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예 교사에게 물어보지 않는 것이 자신의 무지를 교사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기초학습능력이 낮은 학생의 학습을 악순환에 빠지게 합니다.

4. 동기

학습에 몰입을 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지식 내용에 깊은 흥미를 느낍니다. 비록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지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모르는 것을 알았을 때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끼는 기쁨을 투입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는 내적동기를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도전과 성공을 경험을 통해 자존감도 향상되고 또 내적동기도 강화됩니다. 따라서 학습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현재 자신이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이해하려고 도전해도 다시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동기를 상실합니다. 결국에는 학습의욕을 상실하고 목표가 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다시 도전하려는 마음을 다시 붙잡기가 힘듭니다.

5. 꿈/비전

대개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나 동기도 느끼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에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절실할수록 그 일에 최선을 다 하게 됩니다. 절실히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은 단단히 붙잡고 참고 인내하면 노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계속 이겨내면서 노력하는 그 힘이 바로 '마음의 근력'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근력이 튼튼한 사람이 바로 강한 회복탄성력(resilience)을 가지고 있습니다.

6. 계획성과 목적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발견되는 여러 종류의 핸디캡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외상(trauma)은 이이들을 지속적으로 쇠약하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에 언어 및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류의 학대에 시달린 사람은 무력감에 시달리고, 그런 감각이 어른이 될 때까지도 지속되는 경우,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실합니다. 스스로에게 선택의 능력이 있고, 지금 내린 결정이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나 다른 성인, 또는 교사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무력감에 휩싸인 채 가난한 환경에서 설상가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의 정신세계는 처참하

1) 또래학습의 일환인 '수업 친구 만들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면, 『좋은교사』(2012.5, pp.45~72)를 참조하기 바람.

게 무너지고, 자기 변화를 이끌어 낼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알콜 중독자가 되고 도박 중독자가 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2)]

이와 같이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무력감은 비굴하고 추종적인 성격을 갖기 쉽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감정의 문을 닫음으로서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장단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목적과 계획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습성이 됩니다.

7.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 결여

어떤 유형의 학대로 인해 정신적 외상을 받은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에 대해 극단적 보호의 경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심한 과보호를 하게 되어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여 배우고자 하는 창의적 성향을 파괴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맹목적인 사랑과 의무감에 사로잡혀 아이가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정 폭력이나 학교에서의 폭력에도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만큼 언어나 물리적 폭력에 의해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은 베이비붐 시대에게 있습니다. 다양한 폭력에 의해 학대를 받은 베이비붐 시대의 생존자들은 자신의 자녀를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거의 방임 상태에 두어서 옳은 길을 걷기 위해 자제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결여하게 하거나, 지나친 과보호를 함으로써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일을 추진하거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거나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창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8. 부정적 자성예언

어떤 행동이나 학습을 함에 있어 학습자가 보이는 학습수준은 주변에서 특히 교사가 가지는 기대수준에 부합되게 일어나는 현상을 자성예언(自成豫言) 또는 자기충족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自己充足豫言)이라고 합니다.

개인은 타인이 바라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에 맞추어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 수준에 따라 이들의 학업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과 미래에 대한 믿음은 타인의 관점과 관계없이 주관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으나, 자기 충족 예언은 타인의 기대 수준에 자신의 행위를 맞추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학생에게 교사가 어떠한 이미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학업 성취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그런 학생에게 “넌 잘 할 수 있어”, “너는 더 잘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와 같은 긍정적 자성예언을 하면 좋은 학업성취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시도-실패와 같은 실패 경험을 많이 해오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성예언을 많이 들어왔고, 또 자신이 자신에게 부정적 자성예언을 해오면서 그런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비록 마음속에 정신적 외상을 받았더라도 부모의 야망과 높은 기대, 성공에 대한 압력, 교육 접근성, 전문적 성취에 대한 욕구 등이 얽혀 자존감과 잠

2) David Shipler 저『워킹푸어, 빈곤의 경계에서 말하다』(2009). p. 253.

재력에 대한 믿음을 형성시켜줍니다. 정신적 외상을 받았던 생존자는 불안을 해소하려는 열망이 강해 남을 기쁘게 하는 데 집착하기 쉬운데, 부유한 가정의 경우에는 그것이 눈부신 학업 성취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버려진 아이가 선진국 프랑스의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어 프랑스 정부의 장관까지 등극하게 된 플뢰르 펠르랭(39, '김종숙')의 이야기에서 위와 같이 과거의 상처가 양부모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973년 한 여자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서울 길바닥에 버려졌다. 그 아이는 곧바로 고아원에 보내졌고 6개월 뒤 지구 반대편 프랑스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양부모는 혹시나 차별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며 입양한 딸을 정성껏 키웠다. 갈색 눈을 지닌 딸은 그런 양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공부에 몰두했다."

9. 질문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질문해야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경향도 있지만, 자신이 질문하는 내용이 다른 친구들은 다 아는 너무나 쉬운 문제여서 질문하기를 꺼려합니다.

사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교사가 진도를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기도 합니다.

우리학교에서 자기주도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반디불방과후학교(야간)에서 장학을 들어갔다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교사가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보고 그 교사에게 “왜 저 학생은 가르쳐주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 교사가 “그 학생을 가르쳐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학생만 붙들고 있어야합니다. 다른 학생을 전혀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10. 자제능력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는 자제능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다가도 쉽게 일어서서 돌아다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ADHD란 주의력 결핍에 따른 과잉행동장애로,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하며 공격성 및 충동성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11. 공부습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에 대부분이 공부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습이란 선생님에게 배우고, 자기 스스로 익히는 과정인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올바로 배우는 습관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 익히는 습관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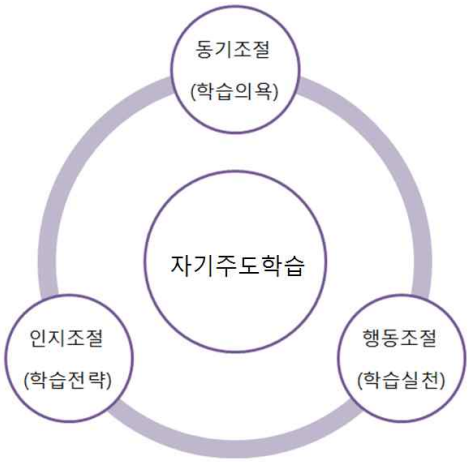
선생님에게 배우는 수업시간에 졸거나 잠들거나 장난을 하거나 다른 짓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졸리면 일어나서 공부하거나, 안일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책상에 앉아서 불편한 옷을 입고 졸리지 않도록 공부하려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런 의지를 찾기가 힘듭니다. 잘 배우기만 해도 기초학력을 가질 수 있는데, 잘 배우더라도 배운 것을 스스로 익힐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되면 소리를 내서 공부하여 몰입을 하도록 노력해야하나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만의 공부방법을 찾지 못하여 공부습관을 형성하지 못해서 꾸준히 계속 일정한 패턴으로 공부하는 공부습관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III. 자기주도적 기초학력정착 방안 탐색

1.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과정에 작용하는 동기·인지·행동이 상호작용하여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워 학습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다음 학습계획에 환류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학습방법입니다. 자기주도학습의 구성요인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동기조절은 학습을 시작하게 하는 내적인 힘으로써 타율적으로 부여되기도 하지만, 학습자 스스로의 내부에서 유발될 때 가장 강력하고 지속력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동기는 과제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과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인 목표지향성과 관련됩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과 자신이 과제를 수행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상실한 학생이 내적 동기가 약합니다. 이런 학생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학습 목표를 정하여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해줌으로써 자기효능감을 키워나가야만 내적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지조절은 학생이 자료나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실제적인 전략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시간동안 공부할지라도 어떤 학생은 더 많은 것을 학습하고, 또 어떤 학생은 더 적게 학습하는 이유가 바로 인지조절의 차이 때문입니다. 학생이 사용하는 실제적인 인지 전략은 학습내용을 익히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시연(반복), 정교화, 조직화, 학습계획 세우기, 점검, 평가 등이 있습니다. 용북중학교에서는 학습목표 세우기, 목표 달성 실천하기, 평가, 환류, 점검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학습 습관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YMS FICHE PLANNER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동조절은 자기주도학습에서 학생이 공부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가장 적합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시간을 조절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YMS FICHE PLANNER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전인교육 프로그램에서는 PLANNER에 학습영역에

학습목표 기술함과 더불어 믿음영역과 품성영역, 건강영역에 자신이 자신의 뜻에 따라 실천 가능한 목표를 영역별로 세워서 날마다 실천하게 함으로써 행동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ICHE PLANNER에 자신이 안일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질 때, 스스로 다짐하는 말을 PLANNER의 여백에 기술하면서 마음을 바로잡도록 하게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자는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FICHE PLANNER의 믿음 영역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관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자기효능감을 증진을 믿음영역에서 기를 수 있습니다.

FICHE PLANNER 활용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 학습목표 달성에 대한 내적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 분량도 자신이 실천 가능한 만큼만 정하고, 학습 내용도 “수학을 열심히 하자!“와 같이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수학 익힘책 pp. 23-25까지 풀채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스스로 원하는 대로 정하기 때문에 학습동기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3] 아직 학습에 대해 내재적 동기가 강하지 않은 학생에게 내재적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 교사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PLANNER를 활용한 내재적 동기 유발은 학생이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하고 실천하는 성공 경험을 반복하여 자기효능감을 갖도록 해야만 내적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YMS FICHE PLANNER 활용 자기주도적 전인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타율적으로 공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이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실행한 후,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환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학습목표는 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분량으로 설정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지도합니다. 자기가 원하여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다른 욕구를 조절하고 주위의 방해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YMS FICHE PLANNER 활용 자기주도적 전인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이 세운 네 영역의 목표를 잘 달성하였는지 스스로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환류시키는 과정이 계속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이 실천 가능한 학습목표를 세우도록 조정하고 또 자신만의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찾게됩니다.

2. 학습습관 형성

학습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에게 잘 배우고, 자기 스스로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잘 배운 내용을 자기주도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선생님에게 잘 배우고, 배운 직후인 쉬는 시간에 아직 기억이 생생할 때 잘 익히도록 습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졸리면 일어나서 졸음방지책상에서 공부할 의지를 키워야합니다.

1)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올바로 공부하는 습관 형성

2)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형성

3. PLANNER를 활용한 학습습관 형성

공부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매일 공부할 분량을 자신의 학습계획서에 구체적으로

3) 풀채오 : 풀고, 채점하고, 오답정리의 약자

기록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공부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로 과제를 부과하기 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목표를 PLANNER(일본아키타현의 초등학교의 가정학습공책)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스스로 매일 매일 공부합니다. 공부를 스스로 매일 매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매일 공부 목표를 기록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습관이 형성됩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매일 매일 체크를 해주고 또 격려하는 말을 써주면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PLANNER를 활용하여 공부습관을 형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공부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하는 PLANNER를 복사하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배우도록 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공부는 자기가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습관을 몸에 붙이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갑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습관을 붙이게 되면 자기주도적 기초학력 정착이 가능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꼭 매일 노력해서 조금씩 해나감으로써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까지는 두뇌력(이해력, 암기력, 집중력)이 중요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공부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부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 자체가 공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TV 보기, 판타지 소설, 만화, 게임, 컴퓨터 등,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잡다하게 차 있어서 공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방황합니다.

공부 10분하다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무엇을 먹다가, 춤추다가, 동생과 퍼즐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놀다가, 공부하기 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잠을 자고, 지각을 하고, 수업시간과 혼자 공부할 때 졸기만합니다.

공부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목표설정, 목표관리를 통해서 시간관리, 미디어관리, 몰입을 이끌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용북중학교에서는 자기주도적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YMS FICHE PLANNER를 활용하여 이러한 공부습관을 포함한 4가지 영역(믿음, 학습, 품성, 건강)의 생활습관을 형성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충분한 연습

어느 분야의 기초학력을 습득하려면 재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재능 있는 자의 경력을 보면 타고난 재능보다 연습의 역할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과목을 통달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그냥 잘하려면 8,000 시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타고난 천재가 다른 경쟁자가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때, 노력하지 않고 정상에 올라간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면, 실력 차이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고 중의 최고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훨씬 더 열심히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연습이라는 매직넘버를 달성해야 합니다.[4)]

기초학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운 바를 충분히 연습해야만 누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기초학력은 물론 전문지식까지 통달할 수 있습니다. 박지성도 연습 벌레였고, 김연아도 연습 벌레

4) 말콤 글래드웰 (2009)『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아웃라이어』

였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의 신이라고 알려진 학생들의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학 풀이공책이 엄청나게 많은 수학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했음을 입증해줍니다.

기초학력을 습득하려면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환경이 자신이 처한 교육기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FICHE PLANNER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목표를 세워서 날마다 실천하고 평가 및 관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충분히 연습해야합니다.

IV. YMS FICHE PLANNER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전인교육

1. 매주 월요일 주간 계획 세우기

가. 매주 월요일 1교시 개인별 주간 계획 세우기(매월 첫 월요일 월간 계획 포함)

나. 영역별 지난주 목표 달성 평가(assessment)하기

다. 목표영역(FICHE)

F - 신앙영역(F*aith/Spirit/Relationship-with-God Domain*)
I - 학습영역(I*ntelligence/Knowledge/Learning Domain*)
C - 품성영역(C*haracter-Building Domain*)
HE - 건강영역(HE*alth/P.E. Domain*)

라. 조별활동 : 4명~6명씩 한 조를 이루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실천해나가는 과정을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마. 지도교사는 지난 주 생활 속에 실천한 것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10분 정도 발표하도록 하여 환류(feedback)시킨 후 Planner 활용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바. 영역별 실천 목표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만큼만 목표를 세우도록 지도한다.

예)

-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다(X),
- 건강에 유의한다(X),
- 영어 공부를 가능한 많이 한다(X),
- 수학 익힘책 pp. 22~25풀기(O),
- 영어 문법책 13쪽~20쪽 풀기(O),
- 단어 20개 외우기(O),
- 매일 운동한 2바퀴 돌기(O),
- 청매 성경 한 구절씩 외우기(O),
- 하루에 한 번 친구 품성 칭찬하기(O)

2. 매주 토/일요일에 개인별로 평가하기

가. 각자 주말에 집이나 기숙사에서 1주일간 각 영역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나. 금주 목표의 실천 정도와 평가 결과를 기초로 다음 주 목표를 생각한다.

다. 다음 주에 대해 각 영역별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생각해보고 메모한다.

라. 다음 주 월요일 1교시에 친구들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지 서로 배우고

자신의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각 영역별로 설계한다.

마. 교사는 YMS FICHE PLANNER의 각 영역에 자신이 계발하고 발전시켜나갈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정하여 달성하도록 '격려'하고 그 '노력'을 칭찬한다. (칭찬과 격려는 빨간펜으로 Planner에 기록해주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항상 노력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 현재의 목표는 미래의 꿈과 연계하여 설계하도록 지도(coaching)한다.

사. FICHE PLANNER는 우리 학생들의 '꿈의 공장'입니다.

3. '진로와 직업' 교과 및 '인류와 문화' 교과 FICHE PLANNER 활용

1) 'FICHE 생각나무'를 활용한 품성교육 및 생각하는 전인교육 실시
2) 한 달에 한 번 '이달의 품성교육' 실시
3) 모둠별 활동 약 6명씩 6모둠을 구성하여 자유로운 생각나누기 품성교육
4) 지난 주 실천한 것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여 Feedback
5)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발표 내용을 기록하게 하여 '경청 훈련' 실시

4. 주의 사항

1) 담임 교사는 전체적인 진행만 이끌어 주고 모든 활동은 학생들에게 맡긴다.

2) 실천한 것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게 하고, 주간별 Faith와 Intelligence, Character-building, Health 영역에 담임교사가 격려와 칭찬의 말을 간단히 적어주면 학생들이 큰 힘을 얻습니다.

3) 생활계획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만큼 세우도록 지도한다.

II.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전인 교육의 비전 : FICHE의 조화로운 계발

교육의 비전은 전인적 인간 회복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생명의 뿌리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회복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내적 품성을 실천적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할 때에 전인교육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

우리 용북중학교는 다음 네 영역에서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해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인적인 인간 회복, 즉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CHE 전인 교육 :

F - 신앙영역(F*aith/Spirituality/Relationship with God*)
I - 학습영역(I*ntelligence/Knowledge/Learning*)
C - 품성영역(C*haracter-Building*)
HE - 건강영역(HE*alth/Physical Education*[*P.E.*]*/Body*)

영어에서 fiche [fiːʃ]라는 명사는 어원이 프랑스어 fiche [fiʃ]로서 '자료나 정보를 기록하는 카드, 표, 전표'라는 뜻을 가진다. 영어에서 fiche는 '여러 페이지분의 정보를 기록하는 마이크로필름 카드'라는 뜻입니다. 신앙영역(Faith Domain)과 학습영역(Intelligence Domain), 품성영역(Character Domain), 건강영역(Health Domain)과 관련된 일상의 실천 목표와 우리의 꿈 등, 우리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마이크로필름 카드가 바로 YBM FICHE Planner입니다. 그래서 fiche는 microfiche ([máikrəfiːʃ])와 같은 말입니다.

개인의 비전과 자기주도적 전인교육을 위한 신앙, 학습, 품성, 건강 목표 설정과 그 방법 및 과정을 세우고 실천해나가면서 다짐하고 또 자신을 채찍질해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생각과 경험들을 마치 마이크로필름 카드에 깨알같이 기록하듯이 기록하는 개인의 꿈의 성취 과정을 적는 개인 역사서(autobiography)가 바로 FICHE 또는 MICROFICHE입니다. 즉 YBM FICHE Planner입니다. 용북인은 하나님 중심의 영성을 기반으로 건강한 몸과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YBM FICHE PLANNER의 각 영역을 균형 있게 계발해나갑니다.

■ 나의 꿈

꿈(Vision)을 종이에 구체적으로 써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1. 나의 구체적인 꿈은?

1)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 이 꿈을 가지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3) 이 꿈이 왜 필요합니까?

단기 목표 (졸업시까지)	
중기 목표 (10년 후)	
장기 목표 (30년 후)	
다짐하기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노력, 마음가짐 등)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앙드레 말로-

Vision Part

2. 2012학년 FICHE 목표 세우기

영역	2012 목표/Objective	2012 Activities /실천내용	Time Schedule /시간계획	Assessment/평가
Faith/ 신앙				
Intelligence/ 학업				
Character/ 품성				
Health/ 건강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do this. (시편 37:5)

Vision Part

3. My Bucket List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하나님! 제가 꼭 이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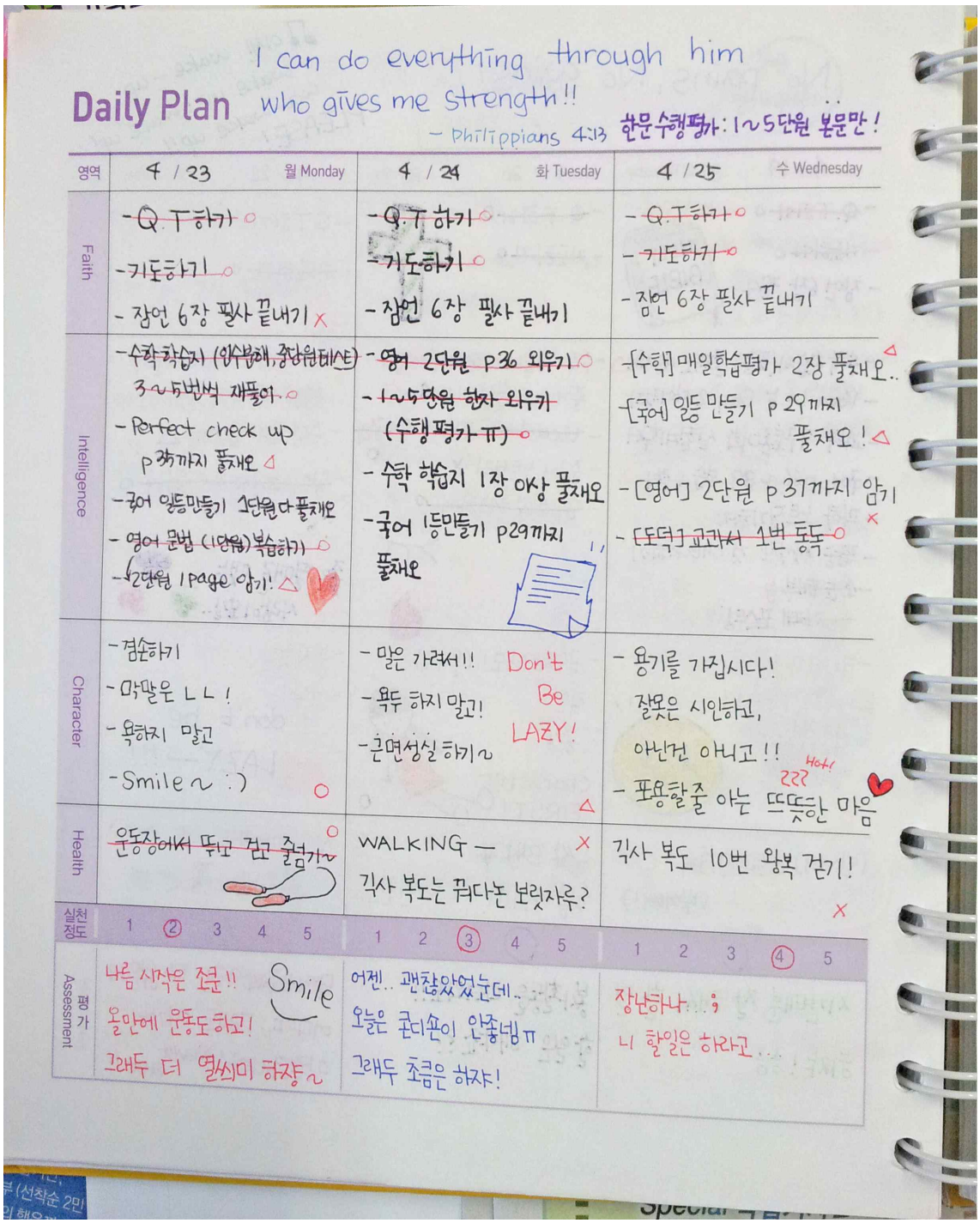
우선순위	꼭! 하고 싶은 일	이루어진 일 (✔)	날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잠언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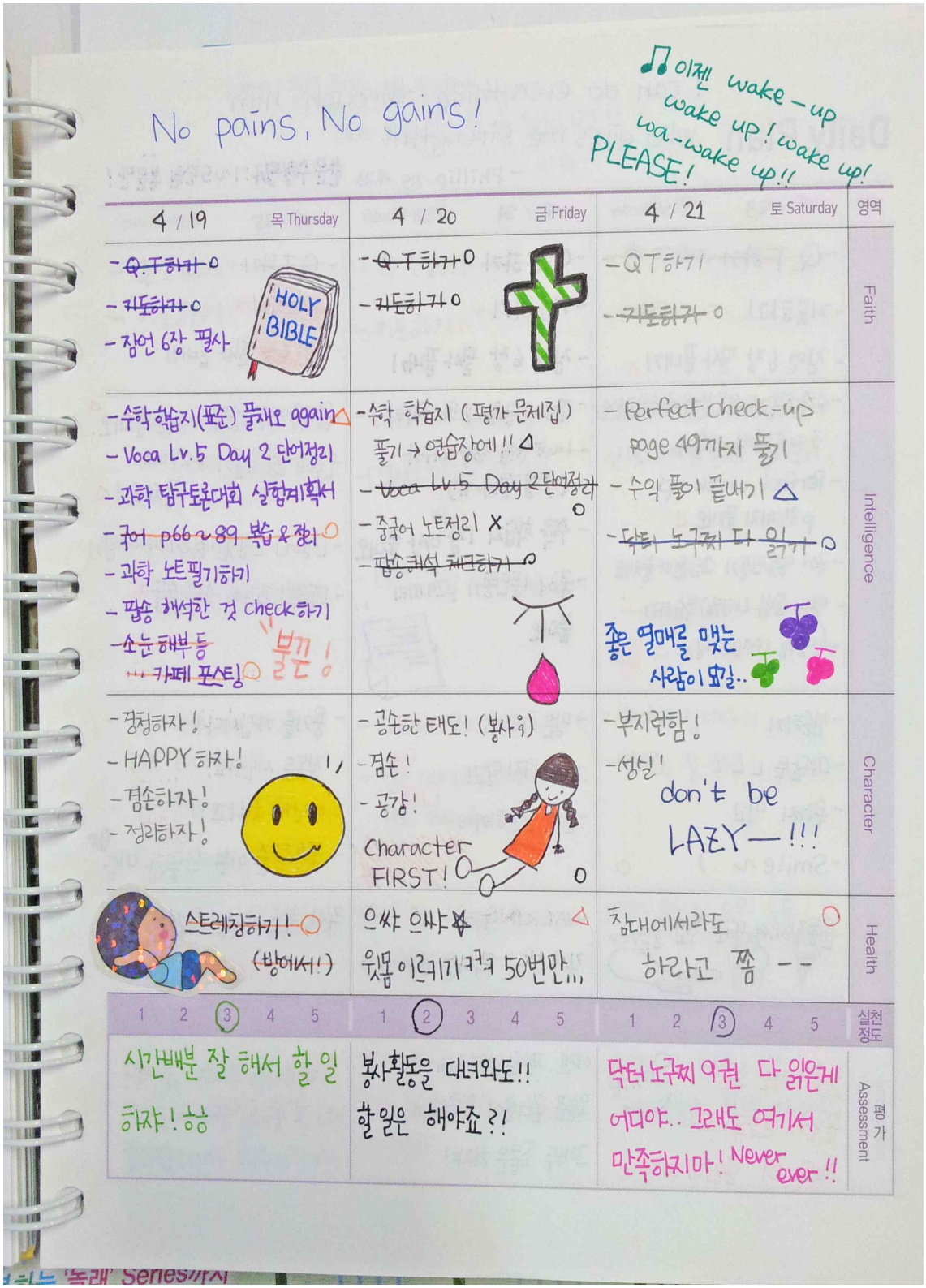
Vision Part

■ 주간 FICHE PLANNER

1. 주간 생활 목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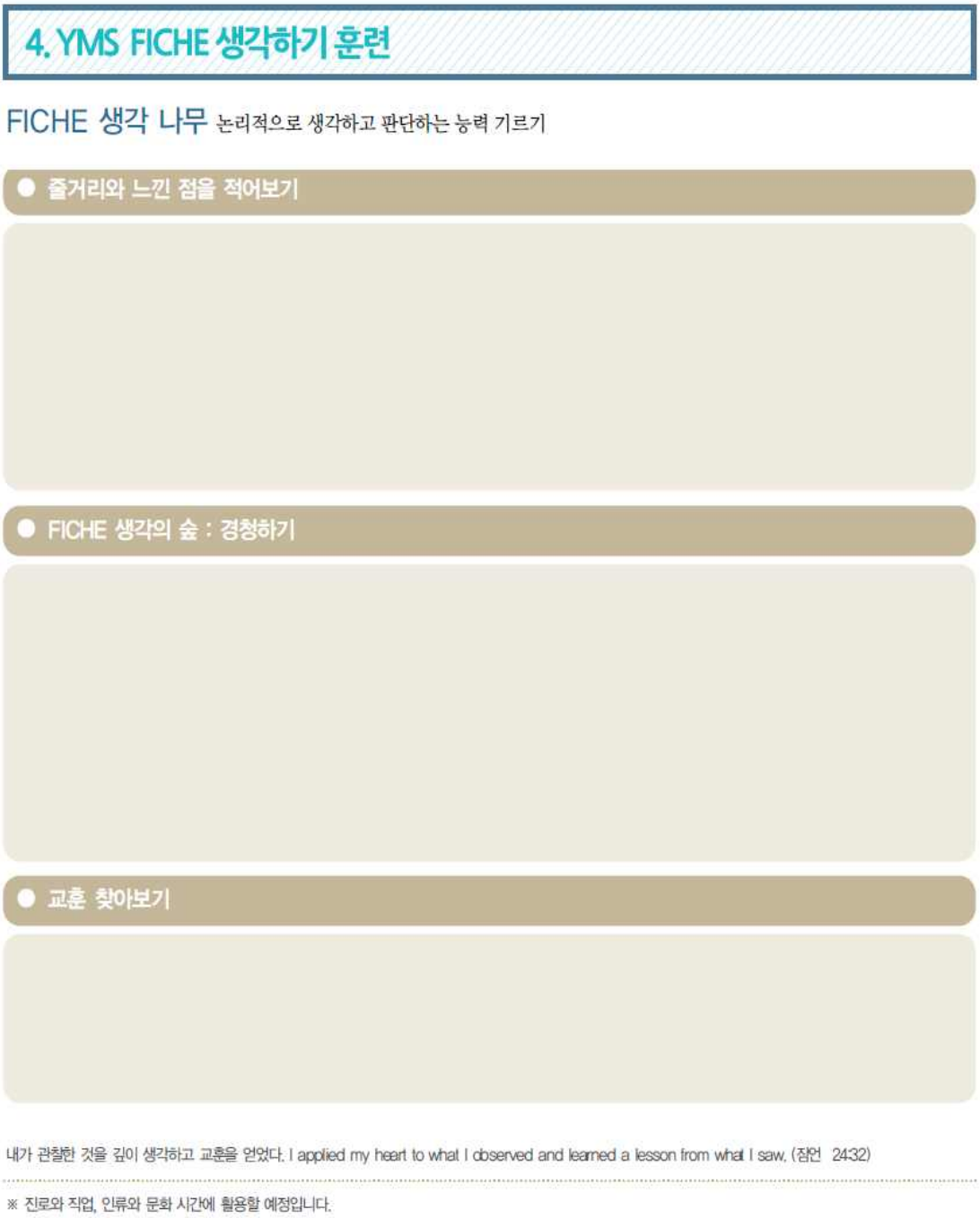


Weekly & Daily Plan


No pains, No gains!
♫ 이젠 wake-up
wake up! wake up!
wa-wake up!!
PLEASE!
4 / 19 목 Thursday
4 / 20 금 Friday
4 / 21 토 Saturday
영역
Faith
Intelligence
Character
Health
HOLY BIBLE
- Q.T하기 ○
- 기도하기 ○
- 잠언 6장 필사
- Q.T하기 ○
- 기도하기 ○
- QT하기
- 기도하기 ○
- 수학 학습지(표준) 풀래요 again △
- Voca Lv.5 Day 2 단어정리
- 과학 탐구토론대회 실험계획서
- 국어 p66~89 복습 & 정리 ○
- 과학 노트필기하기
- 팝송 해석한 것 check하기
- 소논문 부분 등
- 카페 포스팅 ○
붙끈!
- 수학 학습지 (평가 문제집) 풀기 → 연습장에!! △
- Voca Lv.5 Day 2 단어정리 ○
- 중국어 노트정리 X
- 팝송 퀴즈 체크하기 ○
- Perfect check-up page 49까지 풀기
- 수학 풀이 끝내기 △
- 닥터 노구찌 다 읽기 ○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길..
- 정성하자!
- HAPPY 하자!
- 검손하자!
- 정리하자!
- 공손한 태도! (봉사?)
- 검손!
- 공감!
Character FIRST! ○
- 부지런함!
- 성실!
don't be LAZY—!!!
스트레칭하기! ○
(방에서!)
은샤 은샤✱ △
윗몸 일으키기 50번만,,,
참대에서라도 ○
하라고 쫌 --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천냄심정
시간배분 잘 해서 할 일 하자! 응응
봉사활동을 대녀와도!!
할일은 해야죠?!
닥터 노구찌 9권 다 읽은게 어디야.. 그래도 여기서 만족하지마! Never ever!!
평가 Assessment

2. FICHE 생각 훈련

FICHE 생각 나무



Attentiveness & Think Big Part

■ FICHE 전인교육의 네 영역

1. FICHE 전인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인간(human being)은 영(spirit)과 몸(body)과 정신(mind,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에 영혼(the breath of life)이 결합되어 정신(혼)의 활동이 시작되어 비로소 살아 있는 존재(a living being)가 되었습니다.

창조론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대로 창조되었습니다.[5] 神은 영적 존재이므로 인간은 神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神과 소통하는 영이 잘 됨같이 온 몸과 마음은 건강하고 神의 형상, 즉 神의 품성이 몸과 마음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神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神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神은 준재하지 않고 이기적인 자아(self)가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 神의 품성이 상실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몸은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인간의 지배하에 있는 땅을 포함한 자연과 동물, 식물 등 모든 피조물들도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온전하지 못함과 같이 몸과 마음도 온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죽도록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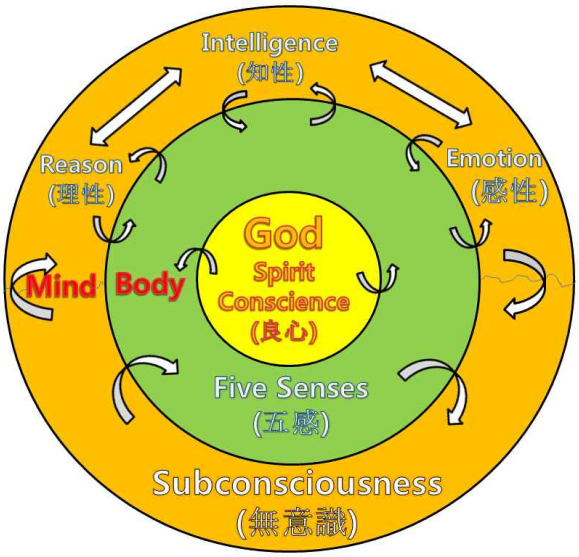


인간에게 神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하고도 본능적인 소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神은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함으로써 그 사실을

5) 창세기 1:26-27, 창세기 2:7
6) 창세기 3:17-19

믿은 자는 모두 神과 인간과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다음과 같이 칭의(justification), 성화(sanctification), 영화(glorification)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혼(soul/mind)과 몸(body)은 의롭다 칭함 받은 이전이나 이후나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 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神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죄의 속성을 버리고 神의 형상(the image of God)을 회복하기 위한 성화(聖化)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야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YBM FICHE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인교육 과정입니다.

2. YMS FICHE PLANNER의 네 영역

2.1 믿음영역(Faith Domain)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의심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추진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神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7] 경험(experience)보다는 믿음(faith)이 진리를 더 빨리 파악합니다. 반면에 의심(doubt)은 모든 가능성을 무력화시킵니다.

율법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8] 믿는다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9] 기독교세계관에는 창조(creation)와 타락(fall), 구원(salvation)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justification), 성화(sanctification), 영화(glorification)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에서 성화(聖化)의 과정이 YMS FICHE PLANNER 활용 자기주도 전인교육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끊임 없는 자신 삶에 대한 계획과 실천, 평가를 통한 자기성찰을 통해 전인으로서 자신의 성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YMS FICHE PLANNER의 네 가지 영역에서 목표 세우기의 예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믿음영역(Faith Domain)의 실천 과제 : 기도, 말씀묵상, 예배, 찬양

---

7) 누가복음 17:6
8) 갈라디아서 3:24
9) 고보서 2:26, 히브리서 11:1

a) 자신과 부모를 위한 기도 (기도노트 쓰기)
b) 친구(짝꿍이나 급우, 학우)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
c) 중보기도하기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d) 국가와 민족, 사회를 위한 기도
e) 올바르게 살도록 기도
f) 성경 읽기/묵상(Bible Study)
g)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worship) 참여
h) 찬양하기(좋아하는 찬양, 배우고 싶은 찬양 등)
i) 말씀(한글/영어) 암송 (학교 벽에 게시된 말씀 외우기)
j) 목사님께 상담하기
k) 전도하기 (Good News 전하기, witnessing love)
l) 하나님 이름으로 약자 보호하기(괴롭힘을 당하는 친구 지키기)
m) 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n) 자연과 가까이 하기(산보, 자연 관찰)
o) 하나님께 감사할 일 적기
p) 신약/구약 성경 통독 일정표
q) 승리의 구절(Verses for Victory)
r) 성경암송 (부활절 성경암송 대회 범위 FICHE PLANNER에 제공)
s) 주의 기도문(한/영)
t) 사도신경(한/영)
u) 행함(마25:31-46)
v) 경건훈련(Sanctification, 성화, 엡 4:13,15, 딤전 4:7-8)

2.2 학습영역 (Intelligence/Knowledge Domain)

학습영역의 계획은 시간 단위로 계획하지 않고 구체적인 학습 분량으로 계획합니다. 자신이 원하고 실천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학습 목표를 세웁니다.

1) 지식(Knowledge/Learning)
a) 예습과 복습 꾸준히 하기(목표는 구체적인 분량으로)
b) 과목 공부 구체적인 목표 정하기
c) 공부 우선순위 정하기
d) 공부 계획 세우기
e) Edupot 기록하기
f) 이 주에 읽을 책 정하기(독서하기)
g) 독후감 쓰기 계획 세우기(글쓰기) 관련 과목 선생님께 학생부 기록 요청하기
h) 체험활동 후 소감쓰기/포트폴리오 만들기(사진, 글, 자료 모아서)
i) FICHE PLANNING 생활화 하기
j) 부족한/필요한 교과지식 넓히기
k) 신문사설 읽기

l) 꾸준히 한자/사자성어 쓰기
m) 궁금한 점 기록하여(? 찍어놓았다) 선생님께 질문하여 꼭 알아보기
n)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기
o) 계획한 공부 미루지 않기 (부득이한 경우 다음 날 최우선 순위)
p) 정해진 시간 안에 과제 끝내기
q) 실천 가능한 학습량으로 공부 목표 세우기
r) 규칙적으로 공부 목표 달성하기
s) 부족한 과목 꾸준히 공부하기
t) 필요한 방과후 학교 꼭 참가하기

2) 이성(Reason)
a) 논리적으로 말하기/글쓰기
b) 큰소리로 분명하게 천천히 말하기
c)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d) 토론하는 법 배우기
e) 경청하는 법 배우기
f)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법 배우기
g)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장점을 배우기
h)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배우기
i) 한 발짝씩 양보하여 협상하는 법 배우기
j) 협동/협력하는 법 배우기
k) 자신의 감정 다스리는 훈련하기
l) 남의 감정 상하지 않기 훈련하기
m)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질문하기

2.3 품성영역(Character-Building Domain)

Character First : 품성은 내 친구!
"매일 한 가지 품성을 계발하자! 품성 계발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도자의 성공은 품성이 결정합니다."
"품성 칭찬 카드를 이용하여 품성 칭찬을 생활화하라!"
"품성 칭찬 카드를 작성하여 사귀고 싶은 친구에게 주라!"
"품성 칭찬을 받으면 품성 칭찬 답장을 하라!"

□ 품성 칭찬의 원칙
- 외모보다 품성을 칭찬하라.
- 결과보다 과정/노력을 칭찬하라.
- 소유물보다 품성을 칭찬하라.
- 비교하지 말고 비유로 칭찬하라.
-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 품성 칭찬 방법
- 첫째, 상대방이 가진 품성의 정의를 말한다.
- 둘째, 상대방의 품성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한다.

- 셋째, 상대방의 품성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말한다.

a) 미덕(Virtues)

- 감사(Thankfulness) : 자신, 동생, 친구, 선생님, 부모님, 어른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기 (↔ 불평 Complaint)
- 결단력(Determination) :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목표를 적절한 시기에 성취하기로 작정하고 시행하기 (↔ 소심함 Timidity)
- 겸손(Humility) : 나의 성취는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여 도와주고 애쓴 결과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기 (↔ 교만 Arrogance)
- 경청(Attentiveness) :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모아 상대방의 말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존중심을 보여주기 (↔ 산만 Distraction)
- 공경(Honor) : 선생님을 포함한 윗사람이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닌 권위를 높이고 존경하기 (↔ 경시 Disrespect)
- 관용(Tolerance) : 모든 사람이 저마다 고유한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이를 받아들이기 (↔ 편협 Intolerance)
- 근면(Diligence) :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성실하게 임무를 끝내기 (↔ 나태함 Slothfulness)
- 끈기(Endurance) :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스트레스를 잘 견디며 최선을 다하여 참고 이기기 (↔ 절망 Despair)
- 기쁨(Joyfulness) : 불쾌한 상황을 만났을 때도 긍정적인 의도를 찾아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며 즐거워하기 (↔ 우울 Depression)
- 담대함(Boldness) : 말하거나 행동해야 할 일이 진실되고 올바르고 정당한 것임을 확신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도 담대하게 말하기. (↔ 두려움 Fearfulness)
- 덕성(Virtue) :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순수한 동기로 옳은 일들을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옮기기 (↔ 불순함 Impurity)
- 만족(Contentment) :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기. (↔ Covetousness)
- 민감성(Sensitivity) :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나 사람들의 태도와 감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기. (↔ 무감각 Insensibility)
- 믿음(Faith) :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의심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추진력. (↔ 의심 Doubt)
- 배려(Solicitude) : 사람이나 사물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형평과 처지를 살펴서 도와주려고 마음을 쓰기. (↔ 냉담 Callousness)
- 분별력(Discernment) :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앞뒤를 살펴서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기. (↔ 근시안적 Myoptic)
- 설득(Persuasion) :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깨우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알려주기. (↔ 강요 Compulsion)
- 성실(Sincerity) : 일치된 말과 행동으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모든 일을 실천하여 결실을 맺기. (↔ 가식 Affectation)
- 솔선(Initiative) : 누가 시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재빨리 시행하여 다른 사람의 모법이 되기. (↔ 게으름 Idleness)
- 순종(Obedience) : 나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들의 현명한 가르침이나 지시를 기꺼이 그리고 성실히 수행하기. (↔ 고집 Willfulness)
- 시간엄수(Punctuality) : 바른 일을 제시간에 행함으로써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해 주기. (↔ 지각 Tardiness)
- 신용(Credibility) : 약속한 것을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성실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기. (↔ 불신 Disbelief)
- 신중함(Discretion) : 적절히 해야 할 말과 행동을 구별하여 후회할 말과 행동을 미리 알고 하지 않기. (↔ 경솔 Imprudence)

- 안전(Security) : 갑작스럽게 닥칠 재난을 미리 대처하여 불상사를 방지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보장받기. (↔ 소홀 Inattention)
- 양선(Benevolence) :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돕기. (↔ 위선 Hypocrisy)
- 열정(Enthusiasm) : 어떤 일에 애정과 집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어 기쁨을 표현하기. (↔ 무심 Apathy)
- 온순(Gentleness) : 사려 깊은 생각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존중하여 상처를 주거나 화내지 않기. (↔ Anger)
- 온유(Meekness) :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자신의 권리와 기대를 양보함으로 이웃을 섬기기. (↔ 강팍 Harshness)
- 용기(Bravery) : 자신의 역할이 필요할 때 겁내지 않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어려운 일을 기꺼이 잘 감당해내기. (↔ Cowardliness)
- 용서(Forgiveness) : 조건 없이 사랑으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고 그의 잘못과 죄를 잊어버리기. (↔ 증오 Retaliatory)
- 유용성(Availability) : 눈앞의 이익과 편리만 쫓지 않고 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 이기심 Egoism)
- 융통성(Flexibility) :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바꾸어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 고지식 Priggery)
- 인내(Patience) : 어려운 환경이나 불우한 여건에 굴하지 않고 고통과 시련을 참고 견뎌 끝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 (↔ 조바심 Restlessness)
- 인사(Salutation) : 만나고 헤어질 때 상대방을 존준하여 말과 행동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 (↔ 무례함 Rudeness)
- 일관성(Consistency) :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태도나 방법이 변하지 않고 꾸준하고 한결 같은 것. (↔ 변덕 Caprice)
- 자비(Compassion) :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겨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처를 감싸주는 것. (↔ 냉정/무관심 Indifference)
- 자립심(Self-help) :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삶을 멋있게 꾸려나가는 것. (↔ 의존 Dependence)
- 절약(Thriftiness) :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 (↔ 과소비 Extravagance)
- 절제(Self-control) : 쓸 데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모든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옳은 일을 행하는 것. (↔ 방종 Self-indulgence)
- 정돈(Orderliness) : 더 큰 능률을 얻기 위해 물건을 제자리에 가지런히 잘 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 (↔ 혼돈 Confusion/Mess)
- 정의(Justice) :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 부패 Corruption)
- 존중(Respect) : 상대방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소중하게 여겨서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 (↔ 무시 Neglect)
- 중용(Moderation) :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모든 일을 균형 있게 판단하고 처신하는 것. (↔ 편향 Bias)
- 지혜(Wisdom) :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변하고 진리를 깨우쳐 실제 삶에 적용하는 현명한 판단력. (↔ 미련함 Foolishness)
- 진실성(Truthfulness) : 과장이나 속임수로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 기만 Deception)
- 창의성(Creativity) : 새로운 것을 창작하여 계발하거나 기존의 것을 연구하여 더욱 발전시켜 새롭게 만드는 것. (↔ 표절 Plagiarism)
- 책임(Responsibility) :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나 직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 (↔ 무책임 Irresponsibility)
- 청결(Cleanliness) :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 건강하게 사는 것. (↔ 불결 Filthiness)

- 충성(Loyalty) : 진정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신이 섬기는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것. (↔ 배신 Treachery)
- 친절(Kindness) : 상대방을 정겹게 상냥하게 대하여 손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것. (↔ 불친절 Disobliging)
- 포용력(Tolerance) :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성격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 편견 Prejudice)
- 화합(Harmony) : 갈등과 분쟁의 요소를 파악하여 제거하거나 해소시킴으로써 화목하게 조화를 이루어 내는 것. (↔ 불화 Discord)
- 환대(Hospitality) : 반갑게 맞아 정성껏 준비한 음식, 숙소 등을 제공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아낌없이 나누는 것. (↔ 푸대접/박대 Inhospitality)
- 헌신(Devotion) : 참된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것. (↔ 무성의 Unfaithfulness)
- 협동(Cooperation) :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위해서 서로 간에 힘을 합하여 고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 (↔ 담합 Collusion)
- 후함(Generosity) : 자원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므로 가치를 높여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것. (↔ 인색함 Stinginess)

b) 정서 (Emotion)

- 좋은 음악 감상하기
- 감정 다스리기
-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 다른 사람 배려하기
- 경청하기
- 칭찬하기(상대방의 미덕(virtue)를 칭찬한다)
- 친구 사귀기
- 다른 사람 감정 배려하기
- 욕하지 않기
- 공손한 말씨 사용하기
- 고운 말 쓰기
- 때를 가려서 말하기
- 부모님께 편지 쓰기
- 어려운 친구 도와주기
- 감정 표현을 함부로 하지 않기
- 미운 정이 드는 사람과 먼저 화해하기
-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기
- 손님과 어른에게 인사하기
- 선배를 존중하고, 후배 사랑하기
-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 자신감을 갖기
- 선생님 존경하기
- 공손하고 친절하게 말하기

c) 봉사 (Service)

- 자발적인 봉사 (휴지줍기 등)
- 정기적인 봉사
- 의미 있는 봉사 (소외자를 위한 봉사)
- 지속적인 봉사
-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도와주기

- 교실과 학교 내 쓰레기 치우기/줍기
- 몸이 불편한 친구 도와주기
- 칠판 지우기
- 무거운 짐 들어주기
- 집안 일 돕기
- 내 주변 청결하게 유지하기
- 힘들어 하는 친구 고민 들어주기
-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기
- 다른 사람 먼저 배려하기
- 분리수거 잘 하기
- 교실 나갈 때 에너지(히터, 에어컨, 조명 등) 절약하기
- 잔반 남기지 않기
-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 학습 분위기 방해하지 않기
- 다른 사람 괴롭히는 일 방관하지 않기

2.4 건강영역(Health/P.E./Body Domain)

a) 하루 30분 이상 걷기/운동하기
b) 식후나 단 것 먹은 후 바로 이 닦기
c) 규칙적인 생활하기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기)
d) 손, 발 청결하게 유지하기
e) 음식 골고루 먹기
f) 바른 자세로 앉기
g)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기
h)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i) 매일 팔굽혀 펴기 하기
j) 불량식품이나 단 것(사탕) 먹지 않기
k)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l) 적어도 하나의 운동을 날마다 즐겁게 하기
m) 스포츠에 함께 참여하기
n) 화분 하나 가꾸기
o) 체육시간과 방과후 스포츠, 토요 Sports Day 적극 활용하기
p) 조깅이나 등산 하기

V. 맺음말

자기주도적 기초학력 정착을 위하여 어떠한 대안이 도입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안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촉진자로서 교사의 헌신과 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생들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는 사람은 교사의 노력입니다. 미국에서 폐교 후 대체 설립한 학교인 '영 스콜라스 아카데미 포 디스커버리 앤드 익스플로레이션'(YSADE)의 성공 사례가 교사의 헌신과 열정만이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기초학력을 정착시켜줄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YSADE에서는 사명감과 비전을 가진 교사를 다니카 라크루아 교장이 직접 채용하여 기존 교사의 절반을 물갈이했습니다. 매주 교사들과 교장이 미팅을 갖고 수업 진도와 학생들의 성적을 체크했습니다. 학생 1명당 교직원 1명씩 멘토로 정해 어떤 내용이든 상담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후 4시30분이면 끝나던 수업을 6시까지 연장해 방과후수업을 활성화했습니다. 농구, 치어리딩, 펜싱 등 체육수업에 학생들을 참여시켰고, 자존감이 떨어진 학생들에게 '너는 성공할 수 있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끊임없이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교사와 학교 관리자는 큰 책임을 지고 있다. 대대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만들어야 학생들도 변합니다.'는 라크루아 교장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